

Invisible Factories

Factory Run Project

Kyungin / Korea

보이지 않는 공장 -공장달리기 프로젝트-

프로젝트에 관하여

원다. 몸으로 공장의 규모를 느낀다. 뛰는 맥박으로 그 시절 노동자의 젊음을 기리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아직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러나 곧 주택지로 개발될- 소사 삼양중기와 광주 전방(全紡)을 2020년에 답사한 경험이 출발점이 되었다. 지금은 없어진 도시 근교 대규모 공장 부지를 찾아가 뛰고 있다. 공장은 이동한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공장들은 도시 근교에 자리잡았다가 더욱 먼 지방으로, 혹은 머나먼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 없어진 공장 부지가 아파트로, 쇼핑몰로, 학교나 주차장으로 쓰임이 변할 때 여기서 일하던 직공들 또한 함께 변해갔다. 감추고 꺼내지 않는 부끄러움이 아직도 많은 듯 하다. 전쟁 전부터 있었던 공장은 과거를 감춘다. 공장에서 일하던 시간을 자랑하지 않는다. 믿고 있던 이념을 토대로 싸웠던 그 시절은 어떤가. 그 시간들이 감춰야 할, 아니면 말로 꺼내기 어려운 주제이다. 그래서 같이 잊혀지는 노동자의 시간들, 빛나는 눈으로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산업 역군으로 오늘의 안정을 이뤄낸 과거, 공장에서 일 했던 빛나는 시간을 기억한다.

About project

전자음악과 밤 공장

Electronic music and factory night

밤에 늘 깨어있는 사람은 밤의 힘을 이해한다. 동공은 낮보다 더 크고, 잠들지 않는 일터의 불빛은 규칙적인 기계 소리에 맞추어 사람조차 기계화 시킨다.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래로 인간 기계화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종교적으로 까지 보이는 거대한 일터의 공간감과 기계의 쇠 소리는 밤의 힘 아래서 테크노 전자 음악을 빚어냈다.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 탈진한 사람들이 말 없이 이어지는 밤의 시간. 개인이 할 수 없는 규모의 일을 사람들은 여럿이서 매일 내일 해낸다. 신체는 확장되고 비트는 끊이지 않는다. 공장 달리기는 전자음악과 찰떡일 수 밖에 없다.

Area & Running Route

A | 경인 산업지대

Kyungin Industrial Be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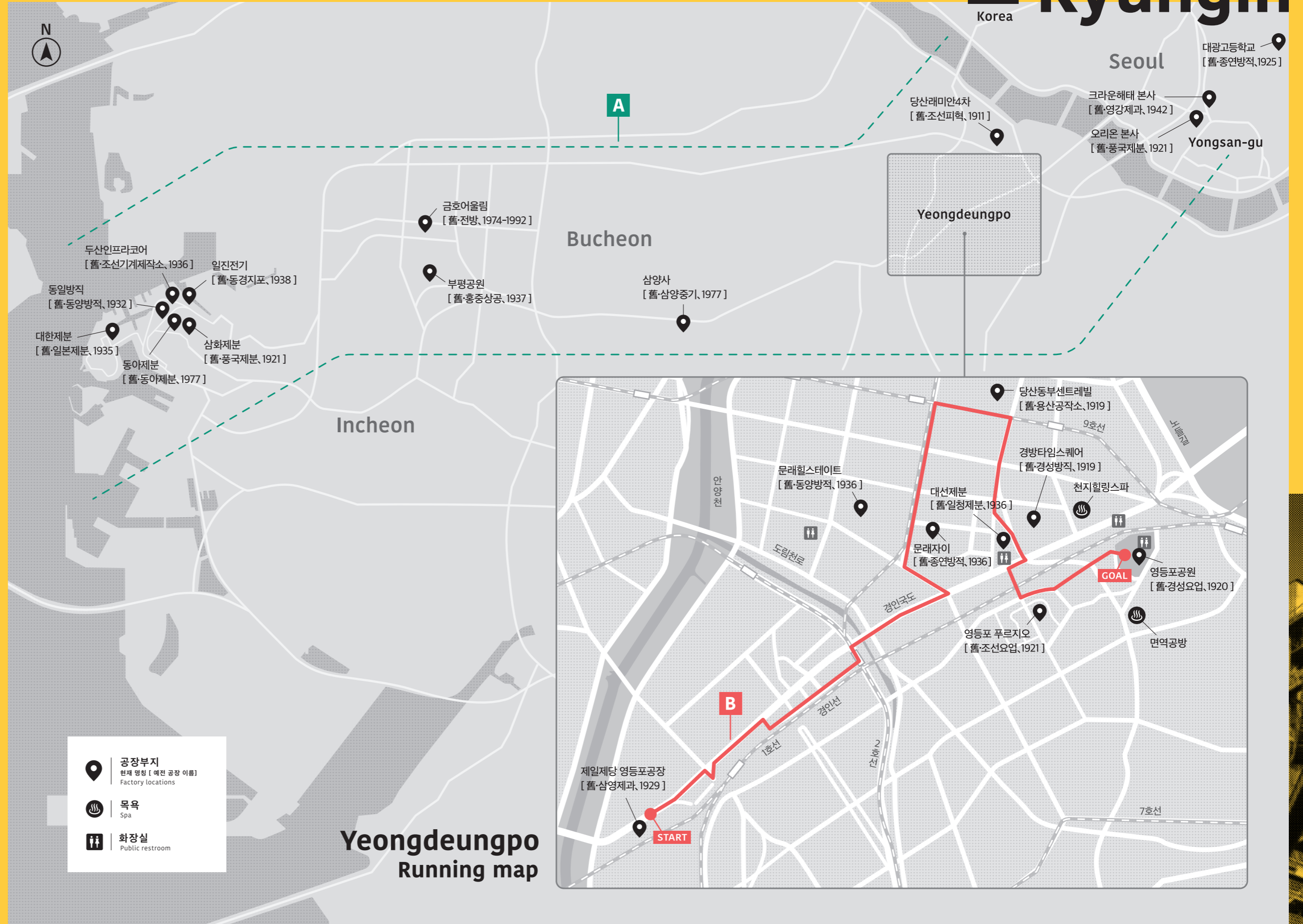
황해도에서 인천으로 피난 나왔던 아버지는 부천과 인천 사이에 자리잡았다. 어린 시절 경인로는 그래서, 국철 1호선과 함께 번두리에서 서울로 가는 상징적 길이었다. 이 길을 따라 함께 뛸 수 있는 코스를 상상했다. 인천에서 영등포와 용산 그리고 동대문까지 이어지는 경인 산업벨트는 도로와 철도, 그리고 천을 따라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구로에 있던 제과 공장과 거기 딸린 목장, 이제는 중심지에 속하는 당시 번두리 신철동에 있던 광대한 방직 공장, 용산은 또 얼마나 흥미로운가. 제과 공장들이 모여있던 만초천 변 풍경을 그려본다. 예전보다 더욱 장엄해진 인천의 지금 공장들과 아직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한 부천 곳곳의 오늘을 말해줄 사람을 기다린다.

B | 영등포 코스

Yeongdeungpo Route

수도권에서 영등포는 손꼽히게 매력적인 지역. 수 만의 노동자들이 꾸준히 거처한 곳이고, 젊음이 모여있던 곳인 만큼 흥미로운 사건들이 자주 기록되었다. 고단한 노동의 현장이었지만 끈끈한 연대가 있던 곳이기도 하고, 지금은 극적인 변화의 스펙타클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뜨거웠던 해방 공간에서 영등포의 사건을 추억하는, 대립한 노선에 선 사람들의 각기 다른 기록을 읽은 어떤 겨울 밤에 이 달리기 루트를 그리고 달려보았다. 시작은 구로역 앞 제일제당 공장이다. '김재철'이라는 많이 회자되지 않는 건축가의 흔적을 읽을 있는, 건물이 가진 압도적인 송고함 앞에서 힘을 충전한 주자는 공장 주변 공구상가들을 따라 힘차게 달려나간다. 수 천명이 함께 일하던 문래역 주변 공장터까지 닿았다면 보이지 않는 철도인입선을 따라 현 영신로 변에 산재했던 여러 공장터를 스쳐 돌아온다. 경성방직이 있던 타임스퀘어와 대선제분을 사이를 지나면 철로를 넘는 구름다리를 건널 수 있다. 한때 웅장함을 뽐내던 맥주 공장터에 당당히 서있는 푸르지오 아파트를 지나 철로변 좁은 길로 뛰어나가면 마침내 목표 지점인 소화기린맥주공장, 아니, 영등포 공원에서 약 7km 의 야간 달리기는 끝난다.

경인 지도와 영등포 달리기 루트



Project Information

프로젝트 개요와
공장부지 부가 정보



Supported by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Government of Japan, Fiscal Year 2020